

전남지자체, 지역발전 힘 모은다

올해 첫 상생협력간담회 개최 협력 다짐 한전공대 지원·지역상품권 발행 등 협약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한전공대 설립 지원 등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은다.

전남도는 25일 강진군청에서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한전공대 설립 지원, 지역상품권 조기 활성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설립 등 현안에 협력을 다짐했다.

또 광주·전남 관광활인카드인 남도패스 지역 가맹점 발굴, 경전선 거북이 열차 체험 홍보 등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추기로 뜻을 모았다.

김지사는 “올해 6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 확보와 한전공대 설립 부지 확정, 국가균형발전프로그램의 2조9,000억원 반영 등 큰 성과들이 있었다”며 “시장·군수들께서 함께 노력해 준 덕분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을 미래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수도,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산업의 허브, 섬·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만드는 비전을 그리고 있다”며 “시군에서도 대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자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도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

협약은 전남도와 시군이 세계적 수준의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범도민 홍보에 힘쓰고, 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과를 활용해 모든 시군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복측 및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일원화된 협의체로,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22개 시군에서 845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인 지역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와 민간 소비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고 2020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21%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지역상품권 유통 활성화는 지방소비세 증가로 이어져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오전 강진군청에서 새천년의 원년! 전남 행복시대를 함께 뛰기 위해 열린 2019년 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국립에코난대식물원’ 조성 속도

1차 관문 산림청 ‘난대수목원’ 후보지 5곳 압축 해남 달마산·완도수목원 등...최적지 선정 대응

전남도가 산림청이 추진 중인 ‘국립난대수목원’ 사업과 연계해 김영록 지사의 핵심공약인 ‘국립에코난대식물원’ 조성(본지 4월 24일자 1면)에 나선 가운데 수목원 공모에 응할 도내 대상지가 5곳으로 압축됐다.

전남도는 25일 산림청의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후보지로 장흥 천관산, 강진 부용산, 해남 달마산, 완도수목원, 진도 지력산 지구 등 5곳으로 압축했다.

5개 후보지는 200ha 규모의 전남 서남권 국·공유지 중 산림청 평가표를 기준으로 난대식물원 여건에 적합한 기후, 강수량, 난대 식생대, 섬, 해안, 역사·문화 자원, 교통 등을 검토해 추천했다.

최종 후보지는 식생, 생태 및 관광 전문가 인력풀 30명 가운데 무작위로 10명을 뽑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5월초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평가항목은 자연 조건·식생·접근성, 입지 여건, 문화자원 활용, 기반시설 현황 등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말 제4차 수목원 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통해 난·아열대를 아우르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2월 전남과 경남 두 곳을 후보지로 정했고, 5월 평가단 구성, 7월 타당성 평가를 거쳐 8월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1,000억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경쟁력 있는 도내 후보지를 선정한 후 지역 장점과 비교우위 자원 등 당위성과 논리를 발굴해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 김영록 지사의 공약인 국립에코난대식물원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에코난대식물원은 200ha 규모에 국비 1,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기후변화 대응 전진기지이자 민선 7기 주력 현안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기후대별 온실, 식물원지구, 교육휴양지구, 6차 산업화지구 등이 핵심 시설로 조성된다.

박형호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 국립난대수목원 후보지 선정에 대응할 계획이다”며 “전남이 보유한 최고의 난대식물 자원과 인력, 문화자원 등을 바탕으로 유치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시,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안전관리 등 13개 항목 평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2018년도 옥외광고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옥외광고업무 관련 정책,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사업자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등 13개 항목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기관 표창을 받으면서, 광역자치단체 중 옥외광고 업무분야 최우수 기관임을 입증했다. 시는 우수기관 선정으로 지급받은 시상금 2,000만원을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수영대회를 대비해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실시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형 강소기업’ 지역 대표기업 성장 2년간 지원한 20곳 매출·고용·수출 급증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가 참여 기업들의 성장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 이들이 지역대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주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라인호(주) 등 20개사를 선정해 기업별로 2억원을 들여 연구개발(R&D), 마케팅, 성장전략 수립 등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 결과 매출액, 고용, 수출, R&D 투자 등 전반적인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20개사 총 매출액은 2018년 말 1,4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고용 인원은 579명으로 2016년 말보다 78명(15.6%)이 증가하는 등 민간부분

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개사가 해외시장을 개척해 2018년 말 기준 244억원 가량을 수출, 전년보다 11.9% 늘었고 수출 참여 기업도 당초 7개사에서 6개사가 늘었다. R&D 투자도 2018년 말 36억원으로 89% 늘었고,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도 57건을 출원·등록하는 등 2016년 말보다 119% 증가했다.

전남도는 올해도 강소기업 20개사를 신규로 선정해 연구개발 및 성과사업화, 맞춤형마케팅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24년까지는 모두 100개의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강소기업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기업 2곳 투자유치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 연구센터는 25일 ㈜세심, 레인보우팜(주) 등 2개 기업과 2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세심은 함평 나산면에 10억원을 투자해 막걸리 효모를 생산하고 효모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해 생산한다.

레인보우팜(주)은 나주 왕곡면에 15억원을 투자해 지역 쌀을 이용한 호두과자, 소스 및 쌀국수 제품을 개발해 생산한다. /정근산 기자

레인보우팜은 식품산업연구센터가 기업보육실 운영을 통해 육성 중인 보육기업이다.

식품산업연구센터가 지금까지 기업보육을 통해 지역에 안착시킨 기업은 ㈜캠프트, ㈜국푸드, ㈜한국전북연구원, ㈜협시비에프앤비 등이 있다.

신삼식 센터장은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기업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어 기쁘다”며 “투자기업이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이낙연 “북 선수단 참가 좋은 영향”
▶면에서 계속

“도·입장권 판매와 후원이 속제가 될 것이다. 입장권 판매는 총리실부터 앞장서서 하겠다”며 “후원은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수영대회 경기단체관람 등 입장권 판매 목표는 37만매(75억원 상당)이다. 수영에 낮은 관심과 스타 부재 등의 이유 입장권 판매율은 12%(4만매, 10억원)에 그쳤다. 개최식을 제외한 경기종목 입장권 판매율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재정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 등 대회 후원 참여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교통, 관광, 에너지 등 대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 공공기관의 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독려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수영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도움 필요하다”며 “총리실 앞장서서 입장권 판매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계기로 대회 입장권 판매와 후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삽니다
전국 임야/단독주택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환전문
빌딩/토지/임야 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432 (2018고단 24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임종남
위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의점으로 기소되었으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15
판사 박남준

전매 광고 안내
전매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업·분양·모임
·광고국 062) 720-1016, 1017
·팩스 062) 720-1020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만, 근조화환 3만
경조화환 7만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합 박배성 302-0316-649511

신창동 근린상가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합의)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재고합19 내란중요임무중상사등
위 피고인은 내란중요임무중상사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4
판사 송각엽

월간 전남매일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